세계바둑계는 '춘추전국시대'

〈韓·中·日〉

〈이창호 9단〉

〈이세돌 9단〉

〈조치훈 9단〉

〈장쉬 9단〉

〈구리 9단〉

〈콩지에 9단〉

이창호 시대 접은 한국 이세돌 외 다관왕 없어

日·中도 장쉬·구리 등 1인 전성시대 막 내려

'1 對 다수'에서 '다수 對 다수' 시대 대혼전

국내 바둑계의 오랜 맹주로 군림해 오던 절대자 이창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물론 과거의 위세에 비추어 그렇다는 말이고, '이창호 시대'를 협의로 해석했을 때에 그렇다는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바둑계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보자면 여전히 이창호의 시대가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창호가 절대군주의 자리에서 하야한 지금 과연 우리는 포스트 이창호의 시대를 장악할 또 다른 군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현재 정황으로 볼 때 천하를 재통일할 패자의 출현은 적어도 상당 기간 내에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제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 바둑계의 타이틀이 독식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철권통치의 시대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이다.

현 국내 바둑계 타이틀의 분포도를 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창호가 거의 모든 타이틀을 석권한 가운데 두 어 명의 기사들이 남은 몇 개의 타이틀을 나누어 가지며 이창호의 전관왕 등극을 간신히 저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가 이루어졌다.

모든 프로기사들에게 출전권이 주어지는 국내 메이저 기전의 타이틀 수는 현재 9개.

랭킹 1위 이세돌 9단이 GS칼텍스배와 KBS바둑왕전, 한국물가정보배에서 우승해 3관왕으로 국내 기전 최다관왕에 올라있다. 놀라운 것은 이세돌을 제외한 다관왕이 없다는 점이다.

이창호가 최근 전자랜드배 우승에 실패한 뒤 왕위전 하나만을 지키고 있고 박영훈(기성), 조한승(천원)과 안조영(십단) 그리고 신예들인 윤준상(국수)과 강동윤(전자랜드)이 각각 타이틀을 하나씩 갖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춘추전국의 양상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치훈이란 거인이 기성과 명인, 본인방을 움켜쥐며 화려하게 대삼관에 올랐고, 녜웨이핑과 마샤오춘이 대륙을 질타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고만 고만한 강자들이 타이틀을 나누어 갖는 공존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야마시타 게이고(기성· 왕좌)와 다카오 신지(명인· 본인방)가 열도를 양분한 가운데 조치훈(십단), 고노린(천원)이 타이틀을 하나씩 갖고 있으며 한때 일본 1인자라고 불렸던 장쉬가 작은 기성전이라 불리는 기성(碁聖)과 중소 타이틀인 NEC배 , 아함동산배 타이틀을 보유해 3관왕에 올라있다.

중국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랭킹 1위 구리가 천원과 명인을 보유하고 있을 뿐 이렇다 할 강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응씨배와 삼성화재배 우승으로 중국 최고의 스타로 부상한 창하오 역시 자국 기전에서는 무관이다.

콩지에, 왕시, 치우쥔, 류싱 등 국제대회를 통해 얼굴이 익숙한 강자들이 남은 기전의 타이틀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정도이다. 바둑계의 춘추전국시대는 이제 세계 바둑계의 트랜드로 자리잡아가는 느낌이다.

절대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시대. 일 대 다수에서 다수 대 다수의 혼전을 피할 수 없는 시대. 세계 바둑계의 영토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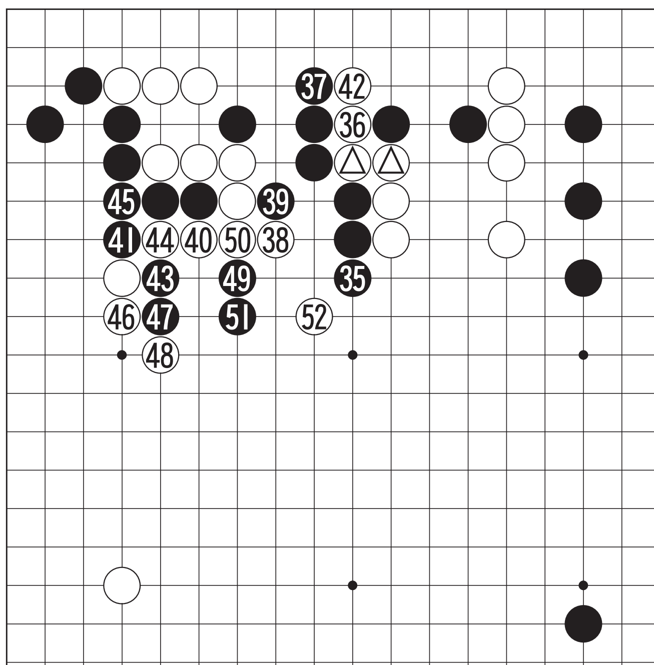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4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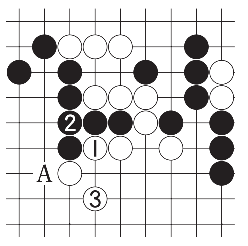
공격의 효과

3보(35~52)

白 김영수 5단 (호남 교사회)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

백 △로 젖혀 이은 것이 흑의 모양을 무너뜨리는 좋은 수가 되고 있다. 돌들이 부딪히자 접근전의 명수인 김영수 5단이 힘을 내고 있는 장면이다.

흑 35는 이 한수이며 백이 36으로 푹 찔러왔을 때 흑 37로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백 △들의 효과다. 이 효과로 백은 일단 오른쪽의 흑 두점을 차단하는 전과를 올리고 있다.

백 40이 또 기분좋은 봉쇄다. 이미 흔들리기 시작한 박광주 5단은 손따라서 41로 지켰으나 이 수는 작았다. 이 수로는 상변 42의 자리에 넘어가고 싶다.

바둑이 뜻대로 술술 풀려가자 김영수 5단은 긴장했던 마음이 느슨해진다.

백 42가 급한 곳을 외면한 때아닌 밝힘증으로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몰고 3으로 지켜두는 것이 두텁고도 안전했다. 강하게 둔다면 1로는 'A'로 느는 수도 가능하다.

박광주 5단이 강력하게 43으로 젖혀가자 감자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전의 양상으로 변해버리고 있다.

약한 돌들이 얽혀있는 데다가 단점들이 많아 서로 어려운 싸움이다. 백 52가 절호의 맥점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국수전, 최기훈 돌풍 주의보!

8강전서 박정상 물리쳐

최기훈 초단이 국수전에서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 초단은 최근 한국기원 본선 대국실에서 열린 제51기 국수전 본선 8강전에서 박정상 9단을 146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4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전통의 국수전에서 무명에 가까운 신예가 4강전에 진출한 것은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지난 2006년 8월 공식대국을 가진 이래 24승 17패의 통산전적을 기록할 정도로 비범함과는 거리가 먼 새내기 기사였기 때문.

그러나 그는 지난 18일 대회 16강에서 거함 조훈현 9단을 물리친 후 한국랭킹 6위인 박정상 9단까지 꺾고 메이저 대회 4강에 오름으로써 자신의 이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새내기 기사이다 보니 본선 대국도 국수전이 처음이며 십단전 본선에도 올라 1회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윤영기기자 penfoot@

"농심배 우승, 내게 맡겨라"

박영훈 한국팀 유일 2년연속 태극마크 달아

박영훈 9단이 최근 한국기원 본선 대국실에서 열린 제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한국대표 선발전 예선결승에서 김승준에게 불계승을 거두며 대표팀에 합류했다.

이로써 지난 8회 대회에 이어 두번째 정상등극에 나설 정예멤버들이 박영훈, 홍민표, 조한승, 목진석,박영훈 등 4명으로 꾸려졌다.

남은 한 장의 티켓은 대회 주최측이 추천하는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 물망에는 현재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이세돌과 '농심배 우승 청부업자' 이창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는 박영훈. 대표팀이 대폭 물갈이된 가운데 박영훈은 2년 연속 출전하는 유일한 선수다.

그는 제4회 대회 때 첫번째 타자로 출전해 4연승을 거두며 우승을 견인했고, 제8회에서는 네번째 타자로 출전해 1승도 거두지 못한 한국에 꿀맛같은 4연승을 선물하는 등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한국의 강점으로는 이번 대회 출전선수 모두가 농심신라면배 유경험자라는 점이 꼽힌다. 단체전인 데다 속기전이라는 대회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경험자가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

농심배는 오는 12월께 열릴 예정이다. 제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의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60초 1회. 우승상금은 1억5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日 장쉬 9단 요코다 꺾고 기성 타이틀 방어

일본의 장쉬 9단이 최근 열린 제32기 기성전 도전 5번기 3국에서 요코다 시게아키 9단을 302수 끝에 백 1집 반으로 따돌리고 기성 타이틀을 방어했다.

지난 31기에서 요다 노리모토 9단을 꺾고 타이틀을 따냈던 장쉬 9단은 첫 방어전에서 3-0, 완봉승을 거두고 기성전 2연패를 달성했다.

한 때 명인과 본인방을 양손에 쥐었던 장쉬 9단은 다카오 신지 9단에게 명인과 본인방을 모두 내주며 1인자 자리에서 내려온 바 있다.

그러나 기성방어에 이어 명인전 리그에서도 도전권을 따내 다카오 신지 9단과 명인전 7번 승부를 예약하는 등 부활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공인중개사
☎(代)383-5221 핸 011-609-5221
(상무지구 입구)

◉건물투자
•보증금 36억 월세 3,000만원(지역 최고상권) 융자 12억 매매가 85억 (토지와 교환가능)
•동림주공아파트 입구(신축빌딩) 융자10억 보증금 10억 월1,800만원 예상 매가 34억
•치평동 대지1,623㎡(490평) 건평4,100㎡(1,250평) (신축)병원, 학원적합 예상임대가 보10억 월임대료 4,000만원
•보증금 3억 월세 700만원 매가16억(상무2지구)

◉땅투자(상무지구)
•2,800㎡(850평) 3.3㎡당 1,100만원
•661㎡(200평) 3.3㎡당 1,200만원
•1,653㎡(500평) 3.3㎡당 820만원
•426㎡(129평) 3.3㎡당 650만원(유흥지구)
•330㎡(100평) 3.3㎡당 800만원(시청역입구)
•500㎡(150평) 3.3㎡당 850만원(월350만원)

◉모텔매매
•상무지구 객실 34개 융자 9억7천 매가 12억
•상무지구 객실 35개 융자 20억 매가 27억

◉상가,사무실(상무지구)
•상가 297㎡(90평) 보5천만원 월세 650만원 매가 10억
•치평동 3층 228㎡(69평) 3.3㎡당 390만원

◉임야(농장)
•광산구 동산동 그린벨트 73,000㎡(2만2천평) 농장 3.3㎡당 11만원

◉공장,창고 및 기타
•쌍촌동 대지 152㎡(155평)(20M도로접) 3.3㎡당 265만원
•장등동 3,760㎡(1,140평) 주거지역 3.3㎡당 39만원(투자용)
•서구 자연녹지(대지)9,900㎡ 3.3㎡당 160만원
•서구 마륵동 2,545㎡(770평) 3.3㎡당 170만원

◉주유소 부지
•봉림동 빛고을로입구 4,300㎡(1,300평) 3.3㎡당 350만원

★양도세 부동산 교환상담 환영★

정우부동산
☎(代)675-4788~7 핸 011-603-4788
(봉선동 한일병원부근)

건물급매
·대지 260평 건평 약600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9억8천 보증금 1억 2천만원 월약500만원 융자 4억원
·주월동 한일병원부근 대지84 건평 약300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8억 보증금 약1억2천 월390만원
·봉선동 한일병원부근 대지65평 건평 약150평 매매가 3억6천 보증금 8,000만원 월세220만원 2차선도로접

토지급매
·봉선동 2차선 버스승강장 인접 대지 약160평 평당 550만원
·봉선동 라인하이츠 입구 부근 대지 약185평 매매가 4억4천만원
·남구 봉선동 무등2차 정문부근 대지 약200평 2차선접 매매가 평당 400만원
·월산동 외곽도로 대지 약160평 35m×10m도로코너 평당 450만원
·인성고 부근 주거지 나대지 102평 204평 평당125만원

시외내농지
·광산구 삼도 오운동 약2,200평 평당 7만원
·남평 공장부지 약2000평 평당25만원
·장성 삼계 임야 약7000평 매매가 5천만원
·나주 삼포 광목간도로변 답730평 평당 70만원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972-4585 핸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사거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 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물류창고, 복지 실버시설
◉첨단중심상업지역 1100평 주·상 복합시설적합

첨단 빌딩 임대
·메디칼 빌딩 1층 60m대로변 1층 160평(은행우대)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지방청사 2008년 개청지 앞 360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빅마트·호수공원 부근 유흥지역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월495만 매5억3천만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월480만 매4억8천만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방3개 보1억2천만 월180만 매4억1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보훈병원 부영아파트 앞 250평
·신창동 제방도로부근 1080평
·신창동 보건대 마을부근 510평
·도천동 공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야동 30m도로 인근 전후편 도로접 가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한일지도판매(주)
☎(예약)529-1409 상담010-2466-1409 (전화)527-6310, 011-9433-6310
(광주시 동구 지산동 373-8 법원정문앞)

2007 최신 합본(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안녕하십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지도를 사랑해주신 사장님들께 특별세일을 실시하오니 7.20~8.20 한달동안 좋은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작한 합본책은?

① 광주 광역시 전지역 재정비·도시계획·용도지역·하남4공단 경계수록 최신 지적, 신규APT 수록
② 나주 나주시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2차 해제수록, 나주송월동 스포츠타운 수록, 송월택지개발 지구 가지번수록 나주 촌곡리 남양유업수록, 정가:100만원→특별판매가:50만원 혁신도시 최종안 수록, 혁신도시로 연결된 도시계획 수록
③ 화순 화순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수록 최신지적 수록
④ 장성 장성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개발예정인 장성 남면에 그린벨트 1차,2차 해제수록 나노단지 지정, 배치도 수록
⑤ 담양 담양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2차 수록, 최신지적 수록, 보촌지구 수록
⑥ 함평 함평군 전지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그린벨트 1차 해제 수록, 최신지적 수록

최신 (광주·나주·화순·장성·담양·함평) 지번도 책 판매중 (6개 시·군 1권에 수록) 1/7500 한일지도판매(주) 광주(062)529-1409 527-6310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성,담양,화순,나주책은 그린벨트 해제된 책은 없습니다.
이외 더 많은 부분들이 있으나 서면으로는 다 말씀드릴수가 없어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신 분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판매개시 한달동안 전화 예약하신분에 한하여 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50% 세일을 단행하였으니 좋은 기회를 이용하세요.
【영업사원 ○○명 모집】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용봉동 투룸 상가주택
대지72평, 연건평120평인 3층 코너 건물이 3억 8천만원이다.
보증금 7천만원, 월290만원이 나온다.
2004년 10월완공이며, 연투자 수익률 11~13%예상된다.
임대수익용으로 적합하다.
세금문제로 인한 급매물. 실 취득가액은 4억5천만원

전대후문 중심상권 상가주택
대지100평, 연건평280평인 4층 건물이 11억이다.
융자3억5천만원, 보증금1억3천만원, 월530만원이 나온다.
4층 주인거주. 융자 5억까지 가능하고, 1층 보증금/월세도 상향조정 가능하다.
예상 연수익률은 9~10%이다.
(목 좋은 자리에 장사를 하고 싶으나, 권리금이 부담스러운 1층 실수요자도 적합한 자리다.)

전대후문 노래방 70평
보증금 6천만원, 월200만원, 시설.권리금이 1억2천만원인노래방이 매물로 나왔다. 룸11개, 소방안전필증 나왔고 도우미가 필요없는 젊은이들의 상권.
전대후문 최고 중심상권에 위치하며, 월수익이 9백만원 이상인 알짜 상가다.

전대후문 대로변 1층 50평 상가
보증금 1억, 월7백만원, 시설.권리금2억5천만원인 상가점포가 매물로 나왔다. 광주대학 상권 중 최고의 유동인구와 상권밀집지역이다. 주말 유동인구만 10만이다. 점포 뒷공간 20평도 활용가능하다. 커피숍, 안경점, 퓨전분식, 이동통신 등 수많은 예비창업자들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러브콜"을 받는곳

북구 운암동 인근 2천세대 아파트 상가
2층 학원 60평 매매가 2억1천5백만원(융자6천5백만원,시설 집기 포함)

북구 용봉동 전대공대 건너편 맨션
대지292평, 연건평441평인 5층 25평형 19세대 맨션아파트가 11억6천8백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원룸 및 고시텔로 용도변경하면 고수익이 예상된다.

상가 임대, 매수, 매매, 전속중개계약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BM 公認仲介士 事務所
부동산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내놓으실때는 최소한 3개월전에 연락주십시요.
업종별 프렌차이즈 점포개발팀 상가문의 환영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mobile)010-7288-4351 ☎062)4342-894
(전대후문 체육공원 사거리)